

졸업을 축하한다

이사장 이 희 영

조물주가 창조하신 만물 중에서 사람이 귀하고, 사람 가운데 배움에 입지한 학생이 귀하고 학생 가운데 끝까지 공을 닦아서 졸업한 졸업생이 가장 귀하다. 그 동안 인내가 부족하여 또는 사고로 인하여 도중에 중지 혹은 물러간 자가 많은 가운데서 여러분은 꾸준히 참고 꾸준히 싸워서 이긴 결과로 영광스러운 졸업장을 받게 된 것을 마음 깊이 축하하는 바이다. 여러분이 받으신 졸업장 가운데는 네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니 1.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사랑의 은총으로 건강을 유지함이고 2. 부모님의 끊임없는 노고가 졸업장속에 숨어 있다. 여러분을 학교에 보낸 후에 물심양면으로 애쓰고 수고한 노고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졸업장이 증명하는 바이다. 거기에는 부모님의 땀과 피가 섞여 있다. 여름날에 논밭에서 비지땀을 흘리시고, 겨울날 추위와 싸워가면서 시장에서 떨며 붓따리 장사로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한 자 두 자 파느라고 고생하시는 어머니 모습, 관청에서 점심을 굶어 가면서 자녀 학비를 위하여 적은 월급 봉투를 들고 오는 아버지의 뜨거운 탄식, 학비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여기 저기 돈을 취하러 다니는 어머니의 모습,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정성이 모든 것이 합하여 이루어진 결정체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졸업장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졸업장은 값을 논할 수 없는 보배요 또 보배로 생각하는 바이다. 3. 선생님의 노고가 섞여 있다고 생각한다. 내 속에 있는 글을 남의 속에 넣는 일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철판 위에 나무



못으로 구멍을 뚫는 일보다 더 어렵다. 똑같은 상대자에게 진리를 침투케 하는 것은 가장 곤란한 일이다. 이 방법 저 방법 교육의 작전을 변경해 가면서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는 노고는 여러분이 가진 바 졸업장이 증명한다. 4. 여러분 자신이 인내가 가해져 있다. 인내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은 여러분을 두고 한 말이다. 여러분이 오늘 졸업장을 받기까지 몇 번이나 넘어졌으며 몇 번이나 낙심하였던가 그러나 오늘의 영광을 진심으로 축하하노라. 끝으로 바라는 바는 여러분이 우리 인성동산에서 혹은 3년 혹은 6년간 긴세월에 신앙 자유 봉공의 정신을 길러왔다. 그러므로 내 이웃과 내 동족에게 신앙을 중시하여 희생 봉사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내시다. 또 모교를 평생토록 잊지 마시다. 어디를 가든지 자랑합시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이 나라에서 칭찬과 신임과 총애를 받는 인물이 되시다. 진실한 봉사자는 남에게 신임을 받는다. 앵무새는 말을 잘 한다 해도 역시 새이며 원숭이가 아무리 흉내를 잘 낸다 하더라도 역시 짐승이다. 사람도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예를 갖추지 못했다면 앵무새나 원숭이와 얼마나 다르랴. 불평이나 거짓말 같은 것은 가장 내 자신을 망치는 것 밖에 안되니 진실한 힘으로써 내용이 충실하게 살아 목적과 건강과 성공이 완전한 인격자가 되어 우리 학원을 빛내어 각자 행복이 있기를 충심으로 빌어마지 않는다.

춘각을 아껴 쓰자



동창회장 최 선 옥

오늘이 가면 내일이 오지만 오늘의 본 태양은 영원히 돌아 오지 않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세태는 변하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회는 변천해 갑니다. 변해 가는 세파 속에서 우리의 생애는 성장하며 우리의 일생은 무궁무진한 시간의 한 순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귀중하고 값 있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학업에 돌진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입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는 여러분들은 사회의 일원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바랍직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려면 역시 풍부한 지식과 교양을 쌓아야 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무한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남들이 즐겁게 놀 때 책장을 넘겨야 하고 남들이 꿈나라에 있을 때 눈을 비비면서 학업에 열중해야 할 것입니다. 싸움터에선 군인이 무기 없이 어찌 싸움에 임하겠습니까? 지식이 없는 인간은 곧 무기가 없는 군인과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식과 교양으로 무장한 역군으로서 인성의 명예를 양 어깨에 짊어지고 사회에 진출함이 자신을 위하는 길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학업에 전심 노력하여 자신을 보다 훌륭하게 성장시킵니다.

인간의 성장에는 영양을 섭취하여 체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지식을 습득하여 정신을 배양하는 두 가지 성장이 있다고 봅니다. 흔히들 신체의 허약함은 걱정하나 지식의 빈약함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양식을 채우기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까. 노력의 결과는 반드시 각광 받는 결실을 맺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참되고 성실하게 자기를 키워간다면 자신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몸담겨진 학교의 명예가 됩니다. 그것이 곧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춘각을 아껴 생각하여야 합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것이니 춘각이라도 헛되지 보내지 말아야겠다는 굳은 신념이 서 있는 한 여러분의 앞날에는 반드시 서광이 비추어질 것입니다.

주 고 싶 은 말



학생회장 고 3 차 혜 숙

「Where, there's a will there is a w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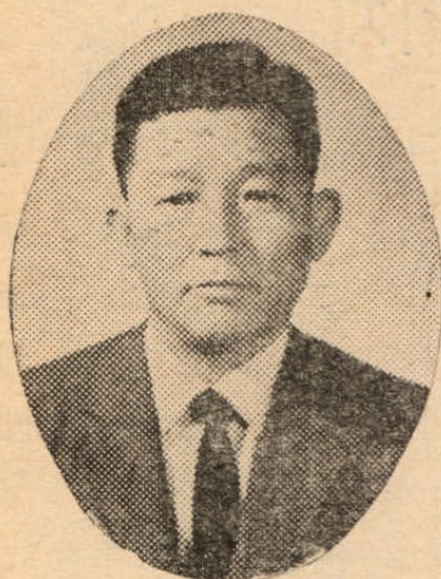
나는 이 평범한 한 귀절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문득 공부시간에 이 귀절을 대하던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책이나 노트의 첫장에 꼭 이 말을 기입해 놓는 그런 버릇이 생겼습니다. 평범한 말 속에 진리가 있다는 그 말을 저는 꼭 믿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한 귀절이 귀중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하루하루를 지나서 한해가 가버려도 뚜렷한 이상 없이 지나는 그러한 사람은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커다란 포부를 간직하고 하루하루를 아낌없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새롭고 흥미있던 시절을 지나 이제 6년이 다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 동안 느끼며 자라오는 동안 뜻한 이야기가 나를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들만이 가질 수 있는 아침 저녁의 학급 예배를 통해 서로를 위로하고 가을이 되면 반 대항으로 경쟁을 하기 위해 저녁 늦게까지 남아서 음악 연습을 하고 환경정리를 하던 추수감사절 행사와 또 눈오는 겨울 밤에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은 합창부들의 고요한 음색에 신비롭게 행하여진 크리스마스 촛불 예배 등등..... 잊혀지지 않는 생생한 지난 날들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 곁에는 주님이 계시어 우리를 보살피 주시고 또 인자하신 교장선생님과 열심히 우릴 가르치시는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니 우리는 두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는 해를 볼 것이 아니라 붉게 피어 오르는 아침 해와 같은 욕망을 가져야 하며 새로이 시작하는 한해를 완전한 마음으로 맞이하여 결코 지난 날을 돌이켜 볼 때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욕망과 노력이 다 하는 그때라야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을 뚫고 비로소 밝은 빛을 보게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니 우리 자신이 보더라도

도 흡족함을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이 학교를 통해 역사가 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길로 뚫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바다가 보이고 하얀 십자가가 솟아 있는 언덕위에 이 인성이 영원한 깃발을 올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학교를 떠나는 마음 안타까우나 내 마음은 이곳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얼마 안가서 이 인성이 빛을 발할 것이라고 생각되기에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날이 쉬 오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기를 간절히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프로이드의 생애와

그의 정신 분석학

교감(중) 김 덕 용

I. 씨그먼드·프로이드는 1856년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이벨그에서 탄생했다. 그의 부모는 유대인이었으며 1859년 오스트리아의 수도 원으로 이사하여 오스트리아가 독일에 합병당할 때까지 78년간—거의 생애 전부를 프로이드는 뉘른에서 보낸 것이었다. 그후 영국 런던에 망명하여 2년후 1939년에 83세를 일기로 영면하였다. 청년시대에 그는 철학적이고 인도적인 문제에 흥미를 가졌었는데 다재다능하여 음악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부문에 깊은 경지를 이루고 있었다. 그는 특히 문필에 능하여 독일 문학의 석학이라고 불릴 정도였고 특히 희랍신화에 심취해서 그의 저서속에서 희랍신화적인 인유가 도처에 스며 들어 있다. 여기에서는 그의 학설 즉 정신분석학을 극히 상식적으로 소개하려고 한다.

II. 프로이드는 그의 나이 17세때 원의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생물 에너지학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는데 그가

1881년 의학박사 학위를 받고서는 의사로서가 아니라 의학자로서 연구에 몰두했다. 그의 최대의 관심사는 인간 <에너지학>이었으며 특히 정신 작용을 기초해 주는 것이 신경계통과 신경역동학이라 규정지어 그의 역동적 심리학을 창시하게 되었다. 프로이드는 그 당시의 반유대주의 풍조와 가족부양의 생활비 문제 그리고 그의 존경하는 스승 에른스트 부룩케의 충고로 인해 의사 개업을 시작했는데 이 임상경험이 그의 학설 정립에 크게 공헌하여 정신분석학이 심리학사상 결정적인 위치에 오르도록 한 것이다.

프로이드의 심리학은 앞서 말한 바 에너지의 심리학이며 여기서는 약술의 편의상 세 가지로 구분하기로 한다

- 1) 프로이드까지의 과학적 추세
- 2) 퍼슨넬리티의 구성
- 3) 퍼슨넬리티의 역학

1) 프로이드까지의 과학적 추세
다윈의 “종의 기원”이 1859년에 발

표됨에 이어 독일의 구스타브·휘넬과 그레골 멘델등의 생물과학과 심리학 그리고 독일 물리학자 헤르만·헤름홀츠의 “에너지 보유의 원칙”등은 프로이드로 하여금 인간 그 자체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려는 흥미를 돋구었으며 이 목적을 달성하는 가장 유리한 방법은 의학이라고 생각되어 의과대학에 입학하게 된 것이다. 프로이드가 사사한 에른스트·부룩케가 1874년 발표한 저서에서 “생물체는 화학이나 물리학의 법칙에 적용되는 역동적인 체계이다”라는 견해에 공명하여 프로이드는 20년간의 연구끝에 “역학의 법칙은 인간의 신체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퍼슨넬리티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것에 의해 그는 퍼슨넬리티 내부에 있어서의 에너지의 변형과 교환을 연구하여 프로이드 심리학을 정립시켰다.

2) 퍼슨넬리티의 구성

프로이드는 퍼슨넬리티의 구성요소를 id, ego, superego의 세 가지라고 보는데 그 요소들을 번역하면 id=원본능, ego=자아, superego=초자아라고 하는데 id는 원본능이라고 하는 이보다 그대로 id라고 하는 이들이 많다. 프로이드에 의하면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들은 이 세 요소가 통일되고 조화를 이룬 상태이며 이것들이

협동하여 작용하므로써 사람은 환경과 그 사이에서 능률적이며 만족할 만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행동의 목적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소원을 만족시키는 것이므로 반대로 그 세 요소가 서로 다투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은 부적응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자기 자신과 그리고 외부 세계에 대해서도 만족치 않으며 능률도 줄게 된다. 다음에 id, ego, superego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프로이드는 id가 본능적 에너기의 원천이라고 보며 그 에너기는 내적인 행동이나 꿈과 같은 환상적인 소원으로 발산된다고 말하고 있다. id의 목표는 사람을 고통스러운 긴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인데 그런 기능을 쾌락원리(Pleasure principle)라고 한다.

ego(자아)는 일차적으로 인식과 지혜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자아의 주요 기능은 외부 세계와의 교섭을 통해서 원본능=id의 본능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자아가 조작되는 원리를 현실원리라고 하는데 현실원리에 의하여 욕구의 무작정한 방산을 억제하거나 포기시켜서 현실세계에서 방산대상이 발견되거나 생겨날 때까지 우리의 행동을 미루어 가는 것이다. Superego=초자아는 자아이상과 양심의 두 가지 제도로 되어있다. 자아이상은 이상과 가치관과 도덕률로 되어

있고 양심은 본능적인 충동의 발산을 윤리적으로 금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초자아는 완성원칙에 의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3) 퍼슨넬리티의 역학

프로이드는 당시에 급격히 파급된 <에너지> 이론에 공감하여 <에너지> 불변의 원리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원리 등과 같이 인간의 심리작용 역시 물리학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에너지>의 운동이며 변형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모든 신체 내의 에너지는 어떤 정해진 원리에 의하여 운동이 이루어지는데 즉 그것은 기본적으로 삶과 죽음의 본능에 연유한다. 본능이란 그 원천과 목표와 대상 그리고 추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본능은 신체적 흥분을 말하며 목표는 그 흥분의 제거이고 대상이란 목표가 달성되는 방법, 그리고 추동력은 본능의 강도를 말한다. 자아나 초자아는 본능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목표의 달성을 저지하려고 에너지를 사용할 때도 있다. 드라이브(의욕, 취향)나 욕구가 제재를 받거나 억제를 당하면 갈등이 생긴다.

이렇게 해서 프로이드는 정신생활을 감소시켜서 행동력으로 돌리는 역동적 구상이 정신분석학의 특성이라고 했다.

만일 욕구 제동력이 욕구 지향력 보

다 강하면 본능적 에너지는 발산되지 못하게 되며 그 결과로 신체 구조 내에서의 긴장이 증가된다. 프로이드는 그의 정신분석학설 초기에 의식과 무의식의 개념을 창설했는데 그는 사람의 심리 현상을 이 의식과 무의식의 두 가지로 구분했다. 만일 정신 현상에 투입한 에너지가 항거력보다 강력하고 그 정신 현상이 언어와 관련이 맺어진다면 그 에너지는 의식이 되며 반면 제일 충족이 반대 충족에 비하여 약하고 언어와 관련을 맺지 못한다면 그 정신내용은 무의식적으로 잠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고로 어떤 특정한 시간에 심리작용의 대부분은 무의식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무의식에도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 어떤 생각들은 쉽게 의식으로 변하는데 그런 종류의 것은 전의식이라고 한다.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근심하게 되는데 그 근심 걱정을 프로이드는 세 가지 걱정 즉 객관적 걱정, 신경성 불안 그리고 도덕적 걱정으로 구분했다. 객관적 걱정은 외계의 위험에 의해 야기되는 공포이고 신경성 불안은 원본능의 힘이 합리적인 자아의 통제를 압제적으로 억누르고 일을 저질렀을 때 생기는 것이며 도덕적 불안은 죄악감이나 수치감 등으로 경험되는 것을 말한다. 도덕적 불안은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사람을 범하는 초자아 본연의 방법이기도 하다.

이상의 세 가지 종류의 불안은 모두 자아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아는 당연히 위협을 원하는 절차를 취하게 되는데 그 불안들을 처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문제 해결법, 합리화 등등의 방법을 택할 때도 있는가 하면 현실 부정이나 왜곡 등의 부정적 방법들을 택할 때도 있다. 자아의 주된 방어 기능들은 억압, 투사, 반동 등인데 억압은 다시 말하면 위협을 자아내는 불안을 의식권 외에 몰아내는 것이고 투사는 원본능이나 초자아에서 오는 것과 같은 내부에서 오는 위협의 근원을 외부로 전향시키는 것인데 이렇게 외부로 불안의 원천을 몰아내는 것은 외부적인 불안이 내부적인 것에 비하여 훨씬 다루기가 쉽기 때문이다. 개성 발달의 윤곽은 다섯 살까지 이루어지지만 성인이 다 돼서 완전히 고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발달해 나간다.

다음의 5개 상태들은 개성을 발달시키는 것들이다.

㉠ 성숙 ㉡ 좌절 ㉢ 갈등 ㉣ 부적응 ㉤ 불안

본능의 동일화, 전이, 융합은 개성 발달이 계속되는데 있어서 주요적 방법이다. 동일화라는 것은 개성이 외부환경의 사상들과 협조하거나 동화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인데, 아이들이 자기 부모의 도덕률을 자기 자신의 개성의 내부 것과 동일시 하므로써 협조하는 것을 배우며 초자아가 형성되는 것이다. 전이는 한 본능적 대상을 다른 대상으로 대치시켜 놓음으로써 이루어지며 융합은 사람이 한 가지 행동을 하므로써 여러 가지 본능적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동일시, 전이, 융합의 결과로써 사람들은 흥미, 태도, 애착등 다양성있는 발전을 하게 된다.

